

2017 국제광융합엑스포 폐막

국제 광융합 전시회 발돋움

300여개 기업기관 참가
28건 수출계약 · 680억원
내년 IOA회의 한국개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국제광융합엑스포' 전시 모습.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국제광융합엑스포'가 내년도 IOA연례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짓는 등 풍성한 결실을 맺고 29일 막을 내렸다.

2017 국제광융합엑스포는 국제광산업전시회와 국제LED&OLED EXPO, 국제LASER EXPO를 통합해 개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도출하며 국제적 광융합 전문 산업전시회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 기간 동안 국내외 30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엑스포 기간 1만 2,000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는 북남미와 유럽, 아시아, 중동 등 25개국 광 관련 바이어 227명이 참가, 300여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에이팩, 중유, 케이원제이, 하우스엔에서는 일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조달업체 대표사인 AXIA를 비롯한 RISDAN, ECORICA, FICTION PLUS 등과 태양광, OLED, LED조명제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광통신기업인 GOC, 국제광엔지니어링에서는 멕시코, 도미니카, 인도기업과 광케이블, 시스템제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체결 14건(631억원) 수출협약 14건(49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학술행사인 'OLED조명 국제 기술교류회'에서는 한국과 독일 양국간의

OLED조명 R&D공동프로젝트 개발과 표준화 방향 등에 대해 상호 협력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기술교류회에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광산업진흥회를 비롯, 국내 유수의 OLED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오는 10월 한국 OLED기술교류단을 독일이 파견, 독일 현지 기업인 B2B 매칭 등을 통해 양국간의 OLED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2018 국제광융합엑스포'는 내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내년도 전시회 기간중 국제광산업협회(IOA) 제23차 연례회의가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 주최로 한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 광산업협회 회장단이 참석해 각 국가간 광산업 분야 공동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IOA(International Optoelectronics Association)는 미국(OIDA)·일본(OITDA)·대만(PIDA) 등 광산업 협회들의 모임으로 주최한 나라의 광산업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유지경쟁이 치열하다.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는 2001년에 IOA에 정식 가입했으며, 현재 12개국의 광산업협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내년 IOA 제23차 연례회의에서 광산업 기술·시장 동향 정보제공과 함께 공동현황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제 사업을 발굴하고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정책을 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전시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광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국제 행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애란 기자

전남지역 대형건설사 3곳 최상위업체 선정

중흥·우미·라인...상호협력평가 95점 이상

중흥건설, 우미건설, 라인건설 등 전남지역 대형 건설사 3곳이 올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대기업)에서 95점 이상을 받으며 최상위업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80개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80개사 중 최상위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169개 등 179개사다.

이번 대기업 건설사 상호협력 평가에서 전남에 연고를 둔 건설사는 중흥건설, 우

미건설, 라인건설 등 3곳으로 95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으며 최상위업체로 선정됐다.

또 중흥토건, 금호산업 2곳은 90점 이상, 호반건설은 80점 이상을 받았다.

이번에 우수업체로 평가된 건설업체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올해 세부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상호협력 실적을 신청 받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세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좌)는 최근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신종백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생명공제유료계약 10조원달성 기념대회'를 열었다.

세마을금고 광주전남본부 생명공제 10조 달성

세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순배)는 최근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을 비롯해 시군구 협의회장, 98개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생명공제 유료계약 10조원달성 기념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공제사업은 1999년도에 계약 1조원을 달성하고 2010년에는 5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6년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3,400억원의 보상을 지급해 든든한 이웃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서미애 기자

전남진흥원-폴투윈 홀딩스 협약

한·일 콘텐츠 비즈니스 교류 약속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이 최근 일본 콘텐츠 전문기업 폴투윈 핏트루 홀딩스(대표 나오토 코니시)와 한·일 콘텐츠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폴투윈 홀딩스 본사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내용은 한·일간 콘텐츠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및 지원 ▲인적자원 교류와 협력 ▲장작품 및 제작사 지원 ▲협회의에 의한 공동사업 추진이다.

폴투윈홀딩스는 게임, IoT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기업 품질보증과 고객 관리 및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콘텐츠 분야 해외기업 지원 서비스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창작품과 신진작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도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홍애란 기자

"아이들 꿈의 무대가 펼쳐진다"

어린이 뮤지컬 단원 챔피언스필드서 공연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은 29일 기아 웰런지 콘서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춤, 노래, 연기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기아 웰런지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단원들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자신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광주시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더욱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 전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됐다.

공연은 프로야구 경기 시작전인 오후 6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됐으며, 30명의 어린이 뮤지컬 단원이 나와서 창작 뮤지컬 '그레도 팬텀'의 중요장면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갈라공연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야구경기장을 찾은 광주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광주시민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들어

낸 아름다운 무대에 아낌 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아이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공연을 마친 아이들은 이어 진행된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펼치는 야구 경기를 관람했으며, 열띤 목소리로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응원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기아 웰런지 콘서트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전남 어업생산량 26% ↑ · 어업인구 16% ↓

호남통계청 2012~2016년 바다 변화상 통계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26.2%가 증가한 반면 어업인구는 1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남지역 바다의 변화상'에 따르면 2016년 어업생산량은 142만4,285t으로 2012년 대비 29만 5,778t(26.2%)이 증가했다. 2016년 현대양식 생산량은 129만785t으로 전국 생산량의 70.6%에 달했다.

2016년 해면어업 생산량 중 주요 증감

품종은 살오징어 및 참치류가 각각 6,208t, 5,558t으로 2012년 대비 각각 4,205t(209.9%), 4,088t(278.1%) 증가했다. 멸치와 참조기는 3만848t, 1만969t으로 2012년 대비 1만528t, 1만1,478t 감소했다. 2016년 양식어업 면허면적은 11만3,728ha로 2012년 대비 12.6% 증가했다. 2016년 전남지역 어가수는 1만8,601가구, 어업인구는 4만4,262명으로 2012년 대비 어가수는 13.8%, 어업인구는 16.4%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어업 경영주 연령

은 2012년 대비 60대 이하 연령대는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은 3.9% 증가했다. 총 어가수 대비 연령대별 비중은 60대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8.3%로 뒤를 이었다.

어가 규모는 1~2인 가구가 71.2%를 차지했고 3인 이상 가구는 29%로 나타났다. 2016년 전업어가는 6,535가구, 겸업어가는 1만2,066가구로 2012년 대비 각각 1,888가구, 1,088가구 감소했다. 어업 형태별로 2016년 어로어업 어가는 9,859가구, 양식어업 어가는 8,742가구로 2012년 대비 각각 1,269가구, 1,707가구 줄었다. 어선 수는 2015년 1만7,325척으로 2010년 대비 1,001척 감소했다. /홍애란 기자

광주경총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국정과제로"

새 정부에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연계 등 실질 지원 촉구

광주경총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현실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결국 좋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고용노동시장의 변화, 노사민정

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경총은 사회통합형, 노사상생형 일자리 개발에 협선다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 협약' 체결에 동참했다.

광주경총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면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 대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4대 원천인 '적정임금 실현', '적정근로 시간 실현', '원·하청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국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빛그린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통해 광주가 '기압하기 좋은 도시'인 동시에 '일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하고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기꺼이 다 할 것을 재천명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애란 기자

Advertisement for Novita toilets featuring 'SUMMER THERAPY' and '06.19(월)~07.31(월)'. It lists four models: Therapy (379,000), Comfort (279,000), 실속 비데 (229,000), and 새 비데를 할인가로 비데보상판매 (239,000). Includes contact info: novita (주) 비데프라자 062) 515-1144.